

2004 주요종단 결산

조계종은 정체성 확립과 교육제도 개선 등 내적 역량 축적에 힘쓰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고, 태고종은 코스닥기업 인수, 불교위성방송 채널인가 등 굵직한 뉴스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조계종 천태종 안정 태고종 약진 진각종 관음·총지종 내실



2004년 조계종의 두드러진 활약은 사회복지분야였다. 사진은 '1사할 1가정 결연사업' 일환으로 지난 6월 총무원장 범정 스님을 비롯해 중앙총무기과 교역직 스님들이 종로구청 내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정 청소년 20명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2004년 조계종 총무원의 가장 큰 화두는 '나눔'이었다. 총무원은 올해 '불교자원봉사활동 공모전' '제1회 불교자원봉사박람회' '제1회 불교자원봉사 대축제' '북한장애우에게 휠체어 보내기 운동' '소년소녀가장 돕기 1사할 1가정 후원' '외국인 상담지원' 등을 통해 자원봉사 및 후원문화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조계종

자원봉사·후원문화 활성화에 박차 간화선 수행법·신도교육 교재 정리

올해 어떻게 처리할 나할 수 있었는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두 번의 실무회의는 승가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승가 구성원들의 합의는 쉽지 않은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포교원이 2004년 가장 주력한 사업은 별년 10주년을 맞는 2005년에 대비해 10개년 계획 100대 과제 수립과 포교방향 설정이다. 이를 위해 포교연찬회를 6차례 개최하고 12월 공청회와 좌담회를 열어 포교원이 나아가길 길과 포교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계종 신도에게 맞는 간화선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교안을 만든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현재 교안은 과학자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작업 중이며 선원장 스님들의 감수가 끝나는 내년 2월경 발간될 예정이다.

조계종 신도에게 맞는 간화선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교안을 만든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현재 교안은 과학자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작업 중이며 선원장 스님들의 감수가 끝나는 내년 2월경 발간될 예정이다.

5월에는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조계종 중앙신도회로 통합, 신도조직의 단일화를 이루었다. 파라마리타는 서울시로부터 자원봉사 활동터전을 인준받는 등 우수단체로 선정돼 청소년 포교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한 한 해였다.

김지연·남동우·조용수 기자

태고종 기업인수·위성방송 채널 확보

지난해 내실 다지기에 주력했던 태고종은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원 불사의 첫 삽(사진)을 뜬 것은 물론 동방대학원대학교 개교인가 획득, 코스닥기업 인수, 불교위성방송 채널 확보 등 종단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이뤘다.



태고종은 연초부터 기업 인수라는 획기적인 카드를 빼들었다. 이 회사에 기존의 녹색장묘사업을 진행토록 맡김으로써 불교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방송위원회로부터 불교위성 방송 채널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내년 중 불교위성방송 개국을 준비하고 있어 불교채널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태고종의 종로시대 개막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한국불교진흥원은 총공사비

120여억원을 들여 짓는 불교종합문화센터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불사가 진행 중이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9월 개교인가를 받은 동방대학원대학교는 내년 3월 태고종 최초의 정식 종립대학으로 문을 연다.

박봉영 기자

천태종 북 영통사 지원·국제교류 확대

올해 천태종의 최대 성과로는 개성 영통사 복원 지원과 국제교류 확대가 꼽힌다. 지난해 통일부로부터 대북사업 교류협력자로 승인 받아 영통사 지원에 나선 천태종은 올해에도 영통사 복원복사를 위해 총 12차례에 걸쳐 기와와 단청재료, 건설장비, 건설부자재 등 25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했다.



사 복원 지원을 통해 남북불교간 교류채널을 다양화하고 남한 불교계의 대북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여기에 천태종에 있어 올해는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해였다. 캐나다

토론토 지부는 신축복사에 돌입해 완공단계에 접어들었고, 몽골 포교당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또한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미얀마, 이란 등의 나라에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기도 했다.

박봉영 기자

진각종 밀교학·진각종학 정립 주력

진각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신 밀교학 및 진각종학 정립에 주력해 내실을 다졌다.



해일 종인을 비롯해 효암 통리원장 등 종단지도자들은 올해 네차례에 걸쳐 인도 북부와 중국 서부, 몽골 등지의 밀교사찰을 방문하며 한국밀교의 원류찾기에 주력했다. 방문을 통해 진각종은 밀교가 티베트에서 몽골을 거쳐 한반도로 유입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아울러 티베트밀교를 간직하고 있는 인도 북부 따보승원과의 교류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사진). 일본 교안단체, 금강봉사 등지에서 양국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학술교류대회

관음·총지종 종단 역량 결집 나서

지난해 죽산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 종단안정을 기했던 관음종은 올해 개산조 태허 대종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총본산 묘각사 낙성과 장종연희비 제막, 탄신 다례,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등을 통해 종단역량 결집에 나섰다.

박봉영 기자

교육원은 승가교육제도 개선이 올해 최고의 화두였다. 연초 교육원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로 출발했던 교육원은 4월 1일 청화 스님이 제5대 교육원장에 취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Advertisement for Nanya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NJUTCM)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campus and text in Chinese and Korean. The text includes the university's name, website (www.njutcm.co.kr), and details about student recruitment, including application procedures and contact information.